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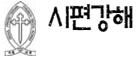
☉ 2007년도 표어 ☉

교회여 진리의 빛으로 다시 서라
-민족을 깨우는 우리교회 (사 51:17, 롬 13:11)

☉ 행동지침 ☉

- 1. 세계 복음화
- 2. 교회 천국화
- 3. 문화 기독교화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 (02)558-1106 팩스: (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시편 46:1-11)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롬 1:17)는 말씀과 함께 가장 애송한 시가 시편 46편입니다. 루터는 위기에 처해 절망과 낙담에 빠질 때마다 자신의 절친한 친구였던 필립 멜랑톤을 찾아가 함께 시편 46편을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를 힘입고 새로운 능력을 얻었다고 합니다.

루터가 지은 찬송가 384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의 배경이 바로 시편 46편입니다. 그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미신과 지옥과 죄악의 세상이 무너뜨리려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교회를 능력 있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음부의 권세가 다 일어나다 해도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께서는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십니다. 우리는 주님께 대한 이 같은 신앙을 확고히 가져야 합니다. 새 천년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의 격변과 전쟁을 넘어 평화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1.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사라”(1절).

시인은 절박한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환난’은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환난이거나 또는 강한 환난을 의미합니다. 모든 질서가 무너지는 환난의 때에 우리가 피난할 곳은 하나님뿐입니다.

어떤 이는 재물이 생명을 보호하는 줄 알고 짧은 때에 재물을 모으는 일에만 힘씁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리석은 자여 오늘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눅 12:20)라고 말씀하십니다. 재물은 마지막 심판날에 우리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이는 교육과 훈련과 기술이 자기를 보호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상의 교육과 최고의 기술을 가진 사람도 갑작스런 사고 앞에서는 속수무책입니다. 그런가 하면 가족과 친구와 사업과 관련하여 안전 보장을 받으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불확실할 뿐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무력해지고 말 것들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라’고 했습니다. “천 명이 네 왼쪽에서, 만 명이 네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시 91:7),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이들은 어떤 경우에도 안전합니다.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2절), 바다물이 솟아나고,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3절)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큰 도움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산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견고한 것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산이 흔들리는 재난 중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하고 흔들리고 사라져가도 우리는 주님을 믿을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구원의 주께 대한 신앙이 너무 깊고 넓어서 변하는 세상에 대해 고뇌하지 않고 더 큰 믿음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담담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2. 그의 나라는 영원하다

1절에서는 하나님이 피난처였으나 여기서는 하나님의 성이 피난처로 나타납니다. 하나님 보좌로부터 흐르는 강이 있고, 하나님의 거처인 성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초를 놓으시고 설계하시고 지으신 성, 곧 천국과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산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은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이 성을 견고하게 지키기 때문입니다. 성이 요동치 않는 것은 시온산 자체가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거기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창과 방패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주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구약에서 주님의 도움은 주로 새벽에 나타납니다(삼상 11:9, 시5:3, 17:15, 90:14). 새벽은 위기의 절정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마지막 순간에 오셔서 도우십니다.

히스기야왕 때 앗시리아의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앗시리아 대군이 물러갔습니다. 이 역사적 격동의 시기는 마치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지며 바다가 흉흉해지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러한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셨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재난 중이나 전쟁 중에서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뭇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시매 땅이 녹았도다”(6절).

하나님께서 발하시는 한 마디 소리로 인해 세상은 진멸되나 하나님의 도성은 흔들리지 않고 그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므로 하나님 나라와 그의 백성은 영원할

것입니다.

3. 너희는 내가 하나님 뉘를 알지어다

“와서 여호와와 행적을 불지어다”(8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므로 주님의 구원 사역이 성취됩니다. 그래서 시인은 예배자들이 하여금 하나님의 행적을 와서 보라고 초대합니다. 우리는 자연과 역사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행적을 보고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8절), 주님의 행적은 때로는 파괴적입니다. 황무함은 전쟁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인간은 망할 때까지 전쟁을 그치지 않지만 주님은 전쟁을 쉬게 합니다(9절).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시는 궁극적 목적 중 하나는 전쟁을 쉬게 하시는 것입니다(9절).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역사의 변혁기에 살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전쟁이나 루터의 투쟁보다 더 큰 전쟁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 최후의 뜨겁도 전쟁, 적 그리스도와 의 묵시론적 전쟁이 있을 것이고, 모든 사탄 마귀들이 다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음부의 권세가 다 일어나다 해도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께서는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십니다. 우리는 주님께 대한 이 같은 신앙을 확고히 가져야 합니다. 새 천년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의 격변과 전쟁을 넘어 평화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견고한 하나님의 성처럼 흔들리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있고 강과 시냇물이 흐릅니다. 은혜가 있고 기쁨과 안전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늘도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믿으시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 이중윤 목사 방송설교 ■
 • TV : 케이블 CH 42(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412(CBS TV) 매주일 밤 9시(각 지역별로 케이블 TV로도 시청가능)
 KISB(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북중미 지역 해외방송) 매주 월 오후 1시30분(한국시간)
 • 라디오 :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XK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 인터넷 : 기독교 TV (http://www.cts.tv) • 기독교 방송 (http://www.cbs.co.kr) • 중국어 인터넷방송 (http://www.c-highway.com)

해병대 교육훈련단 자매결연 · 진중세례식

3월16일(금) 포항 해병대 교육훈련단에서

서울교회와 해병대 교육훈련단의 자매결연 및 진중세례식이 3월16일(금) 포항에 위치한 해병대 교육훈련단에서 열린다.

이날 이종윤 목사는 해병대에 입소하여 훈련을 받고 있는 훈련병 400여명을 대상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설교를 한다. 또한 서울교회와 해병대 교육훈련단과의 자매결연도 함께 맺는다.

우리교회에서는 진중세례식을 위하여 이종윤 목사와 부목사, 장로 여러분과 호산나 찬양대(대장: 황정임 권사 지휘: 서희숙 권사)가 함께 간다. 출발은 3월16일(금) 오전 6시 교회 앞에서 한다. 참석을 원하는 성도들은 미리 사무국으로 본인의 인적사항을 기록하여 신청하기 바란다.

(사)한국기독교 문화진흥원 인수키로

우리교회는 사단법인 한국기독교 문화진흥원을 인수하여 문화의 기독교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현재 사단법인 한국기독교 문화진흥원이 운영하고 있는 한국기독교 학술원이 재단법인으로 전환되며 이사장으로 이종윤 목사를 선임하고 목적사업을 계속하기로 이사회가 결의함에 따라 우리교회가 인수하게 된 것이다.

또한 우리교회는 앞으로 한국기독교 문화진흥원 산하에 현재 별도 기구로 있는 한국교회갱신연구원, KIMCHI, 서울세계선교회(가칭), 필그림 출판사를 두어 총괄적, 체계적으로 문화의 기독교화를 이루어 북음이 땅 끝까지 이르러 전파되도록 힘을 예정이다.

선교사 추가 파송

김용진 목사-아프리카 말라위 · 서흥위 전도사-동아시아

우리교회는 두 분 교역자를 선교사로 추가 파송하기로 하였다. 이번에 추가로 파송하는 교역자는 김용진 목사와 서흥위 전도사로 김용진 목사는 아프리카 말라위로, 서흥위 전도사는 동아시아로 각각 파송 받게 된다. 이들은 오는 4월15일(주) 찬양 예배시간에 파송 받는다.

김용진 목사와 서흥위 전도사의 약력은 다음과 같다.

<김용진 목사> 1955년생

- 송실대 졸업
- 아세아연합신대 신대원 이수
-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졸업(목회학 석사)
- 미국 John Jay College of Criminal Justice(범죄학 석사)
- 미국 Sam Houston State Uni.(철학박사)

<서흥위 전도사> 1966년생

- 동아시아에서 신대원 졸업
- 아세아연합신대 대학원(Th. M. Candi.)

열린프로그램 계속 접수 중

오늘 찬양대양성반, 교구일꾼양성반, 교사양성반 개강

지난주일 개강한 열린프로그램이 성도들의 많은 참여 속에 강의를 계속하고 있다. 오늘은 찬양대양성반과 교구일꾼양성반, 교사양성반을 각각 개강한다.

찬양대양성반은 찬양대원으로 봉사하기 원하는 성도들의 필수코스로서 7주간 찬양대원이 알아야 할 기본사항을 박정선 장로(단국대 음대교수)의 지도로 배우게 되며 주일 오후 1시30분 601호에서 개강한다. 교구일꾼양성반은 교구일꾼으로 봉사하거나 봉사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체계적으로 책임을 감당

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10주간 배우게 되며 주일 오후 3시20분 607호에서 개강한다.

교사양성반은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하기를 원하는 성도들과 현재 교사로 봉사하지만 교사양성반을 수료치 않은 분들을 대상으로 하며 교사양성반을 수료한 성도들에게 교사자격이 주어진다. 개강은 주일 오후 3시20분 609호에서 한다.

열린프로그램에 등록하여 수강을 원하는 성도들은 사무국으로 신청하면 된다.

초등부 성경통독 토요일 집회

7월14일(토)까지 토요일 오후3시부터 802호에서

초등부(부장: 서문석 장로)는 초등학생들도 생명의 말씀을 읽고 은혜받도록 돕기 위하여 초등부 성경통독 토요일 집회를 갖는다.

기간은 3월31일(토)부터 7월14일(토)까지 802호

서 모세오경(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과 여호수아서까지 통독할 예정이다.

많은 초등부 학생들이 참여하여 은혜받는 자리가 되도록 기도한다.

통곡기도회 열린다

-3월29일(목) 오후 5시~10시-

북한구원운동(대표회장 이종윤 목사)과 북한 자유를 위한 KCC(회장 손인식 목사)가 공동 주최하는 북한 인권과 신앙자유를 위한 통곡기도회를 오는 3월29일(목) 오후 5시부터 우리 교회당에서 갖는다.

지난 해 3월1일에 영락교회당에서 처음 열린 후 통곡기도회는 전국 주요 도시를 순회하면서 열렸다. 1년 만에 다시 서울로 돌아와 올해에는 우리 교회당에서 열리게 된다. 이날 저녁 한 끼 금식하면서 난국에 처한 오늘의 현실을 역사의 주권을 쥐고 계신 하나님께 통곡기도로 아뢰면서 긍휼을 기대한다.

어린이 찬양예배 장소변경

11일(주)부터 101호 웨스트민스터 홀

오늘 3월11일(주일)부터 어린이 찬양예배(부장: 이제홍집사)가 교회 1층 웨스트민스터 홀(101호)에서 드리게 된다. 새로운 예배실이 되는 101호실도 차고 넘치는 은혜받도록 기도한다.

고등부 학부모 초청주일

3월18(주) 오전 10시 10분 601호

고등부(부장: 최차순집사)는 소망없는 이 세대에 빛을 발하는 우리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을 초청하여 2007년 고등부 교육운영계획을 설명하고 학생들의 영적성숙을 위한 지속적인 기도와 협력을 구하는 학부모 초청주일을 갖는다.

지하주차장 대청소

3월17일(토) 스테반회 주관으로

지난 겨울동안 지하 주차장 곳곳에 쌓인 먼지와 오물을 청소한다. 이번 청소는 스테반회(회장: 김금준 집사) 주관으로 오전 9시부터 시작된다.

이에 따라 3월16일(금) 금요일야기도회를 마친 후 모든 주차 차량은 1층 교회 정문 앞에 주차하도록 부탁드린다.

25기 단기전도학교 수료자 명단

강석조 구영미 권오영 김광성 김명옥 김미선 김순덕 김재근 김점숙 김차순 김하니 김홍두 김화정 남상경 문분순 박상희 박정선 박춘자 서정숙 송미라 송미정 송인권 신선주1 신선주2 신성균 안분선 안선희 오영숙 우선자 유명석 유성인 이관규 이민재 이사라 이승자 이안순 이은숙 이인숙 이준석 이태정 임미경 장현주 전정숙 정유정 정유정 정혜원 정희순 조민자 조철기 최경분 최성희 최영희 탁경준 하태현 한혜경

-총 55명

천국시민 양성 - 은빛찬양대

오늘도 소망을 품고...



이용선 장로(2교구, 원로장로)

2000년 4월5일 은퇴권사님들을 주축으로 은빛찬양대(65세 이상)가 발족되었다. 찬송가 246장(내 주의 나라와)을 힘차게 합창한 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사43:21)라고 선포하면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더욱 찬송하리이다'(시71:14)라고 화답하며 간절한 기도로 찬양연습이 시작되었다. 찬양대라기보다는 기도 모임을 연상케 하는 초창기의 모습이다.

영화의 면류관(잠 16:31)인 은빛으로 머리를 단장한 40여명(남자2명)의 대원중에는 지팡이에 의존하는 열성대원도 있었으나 청장년 시절의 찬양대원은 5명에 불과했고 초대 부대장 백영희 권사님의 노고는 곧 찬양대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되었다.

찬양곡의 가사는 혼신의 노력으로 암송할 수 있었으나 음정을 이해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다양한 작곡(?)이 연출되었으나 은혜롭게 화음을 이루어 첫

번째 찬양을 드리던 날 주름진 얼굴에는 눈물방울이 맺히기도 하였다.

초창기 대원 중 여덟 분은 하늘나라에, 연로하신 열 분은 회중석에 계시나 마음을 모아 함께 찬양하시는 영원한 은빛 찬양대원이다.

매월 첫째 수요일부 예배 시간 한 번의 찬양을 위해 매주일 한 시간씩 맹훈련을 한다. 점진적으로 60대 후반, 70대 초반의 대원을 영입하여 80여명(남 18명)으로 급성장하였고 지휘자의 헌신적인 노력과 대원들의 열정으로 발전을 거듭하여 음률이 다듬어졌고 찬양대가 아름답게 변모되었다.

지휘하시는 임훈규 장로님이 모든 대원의 연령을 27세(상징적)로 교정해주시면서 고목에 꽃이 피듯 대원들이 활기를 찾았고 지휘자와 반주자(박래경 집사, 김윤지 선생)의 호흡이 조화를 이루며 대장 민순구 장로님의 사랑의 지도는 물론 부대장 김종자 권사님의 충성스러운 준비와 임원들의 빈틈없는 헌신과 대원들의 주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의 일념으로 오늘도 소망을 품고 주님만을 더욱더욱 높이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천국시민 양성 - 단기전도학교

전도, 멈출 수 없다!



오은이 집사(6교구)

장석남 목사님의 지도로 다양한 신앙의 깊이를 가진 구성원들이 모여 함께 각자의 전도간증을 나누고, 심도 있는 강의내용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전도 학교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나의 전도방법에 있어서 미처 생각하지 못하였던 점, 개선해야 할 점들 등 새롭게 돌아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열린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전도의 씨를 뿌릴 수 있고, 나를 낮추고 열린 귀로 대화할 수 있어야 복음전파의 은혜로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소책자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처음 복음을 접하는 이들에게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만들어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하지만 전도자의 역할은 단지 책자를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저들에게 다가가는 것임을 한 번 더 자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기도와 간구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시순절의 기도

그날을 되새기며...

임상현 장로(12교구)

주님은 그 날,

묵묵히 우리의 수많은 죄를 하나하나 기억하시며 남김없이 속죄하기 위하여 고난의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 돌바닥 하나하나를 밟고 오르셨습니다.

베옷을 입고 무릎 꿇어 우리 죄를 대신 자복하는 심정으로 피땀을 흘리며 그 길을 가셨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우리의 무거운 죄를 그 십자가에 둘러 메고 흰 눈처럼, 그리고 양털처럼 우리의 죄를 깨끗이 지워 주시기 위해 살이 찢어지는 아픔도 마다 않고 그냥 그 길을 가셨습니다.

이제 재를 뒤집어쓰고 회개하는 심정으로 그 날의 십자가를 되돌아봅니다.

해산의 고통을 통하여 태어난 자식이 그 부모의 은혜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고난당하신 주님 앞에 그 은혜를 잊어버린 그런 염치없는 사람은 아니었습니까?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었는데 그 주님의 기쁘신 뜻대로 겸손, 인내, 절제의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입으로만 주님을 사랑한다면 가룟 유다처럼 가증한 거짓된 마음을 숨긴 채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우리는 아니었는지, 주님이 진정 누구신지도 모르며 그냥 종려가지만 흔들다가 어느 순간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던 저 유대인 같은 사람은 아니었는지...

이제 이 시순절 기간!!

우리의 무거운 죄를 짊어지신 그 십자가를 되새기며 그 날 받으신 주님의 고난을 우리 몸에 채우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그 주님의 십자가를 슬퍼하며, 회개하고 우리의 높아진 자아가 낮아지며 죽어지는 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의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서로 용서하며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진정 이 수난과 부활의 계절에 우리의 깨어진 자아와 상실한 영성이 주님처럼 부활하는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험한 십자가의 고난을 기꺼이 받으신 그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빛의 사자들!

왕경애 권사(에바다부교사)

추운 겨울도 지나고 얼었던 대지도 녹아내리며 새 생명이 움트는 봄의 길목에서 에바다부 겨울 수련회를 2월28일-3월1일까지 가 평 대성리 늘푸른 캠프에서 가졌습니다.

이번 겨울 수련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연 속에서 에바다부 가족들이 모여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으며 교제하는 자리를 가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빛의 사자들”이라는 주제로 임규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뜨거운 마음과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고 서로 위로하며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복음적 신앙의 일꾼이 되어 농인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에바다부가 되자고 간절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주님의 기도’라는 설교에서는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도록 십자가에 죽기

까지 기도하셨음을 상기시켜 주시며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를 뒤에서 후원해 주시고 증보해 주심을 증거 해주셨습니다.

또한 폐회예배로 드린 ‘빛의 사자들’에서는 예수님이 빛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빛을 반사시키는 삶으로 주일성수, 예배를 귀중

교사와 농인 간 몸짓으로 나눈 사랑의 교제

히 여기고 영생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겨울 수련회를 통하여 에바다부 가족들은 신앙을 재충전하는 기회가 되었으며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동안 수화가 부족하여 서먹서먹하였던 교사와 농인 간에도 열렬(?) 몸짓의 동작이 오고갔으며 서로를 이해하고자 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의 뜨거운 주님사랑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순절(Lent), 영적 순례의 기간

사순절은 우리 주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 물러나셔서 기도와 묵상으로 보내셨던 그 시간들을 따라, 우리들도 기도와 묵상의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되새기는 시간입니다.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은 부활 주일 아침에 세례를 받았는데, 사순절은 세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켰던 절기였습니다. 처음에는 40시간만을 지켰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무덤에 계셨던 시간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주후 3세기경 부활주일 전 한 주간을 준비기간으로 지키고, 다시 30일 동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후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사순절은 말 그대로 40일 동안 주님의 은총을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회개하는 기간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부활을 경축하는 주일은 사순절 기간에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순절은 부활 이전 일곱 번째 수요일

인, "재의 수요일"로부터 시작됩니다. '재의 수요일'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수요일에 수도사들이 참회의 상징으로 머리에 재를 뒤집어썼기 때문입니다. 수도사들은 사순절 기간 동안 자신들의

허물을 생각하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다. 이 기간에는 수염도 깎지 않았고, 결혼식을 포함한 모든 행사도 중지했으며 육식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오늘날은 재를 뒤집어쓴다거나, 육식을 전혀 못하게 하는 등의 일은 여러 가지 삶의 정황들 때문에 사실상 어렵습니다. 다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무엇보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감사하고, 아울러 우리 자신의 죄악 된 모습을 참회하는 시간으로 보내는 ‘영적 순례의 기간’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편집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100만인 전도운동에 나도 동참하도록
2. 일천명 성경통독대열에 나도 참여하도록
3. 친북, 반미 · 좌파 종식을 위하여

■ 교회오시는 길



▶ 대치역 2번 출구에서 걸어서 3분 거리



<교회단신>

● 찬양예배 특별 순서

박정선 장로가 작곡한 새주기도문송이 고성진집사(할렐루야 찬양대 지휘)의 독창으로 발표되며 그의 2곡이 더 연주된다.

● 권사회수련회- 3월15일 오전 10시

권사회 수련회(회장 : 이영희 권사가 서울여대 이광자 총장을 모시고 3월 15일 오전 10시에 웨스트민스터홀에서 개최된다. 많은 참여 바란다.

● 사랑부 특강

사랑부에서는 3월11일(주) 오후 1시 704호에서 이동기 선생(호산나학교 부학장)을 모시고 ‘장애인을 위한 교회학교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갖는다.

동정

- 이종운 목사는 12일(월) 총회사면위원회, 13일(화) 신임근종목사 수련회 개최설교 및 영성훈련 특강, 15일(목) 통곡기도회 준비모임, 16일(금) 해병대 교육훈련단 자매결연 및 진중 세례식, 17일(토) 총회 표준주석 편집위원회를 소집한다.
- 전사회 : 이명아집사(1교구), 미국 뉴저지 몽클리어 대학교, 3. 5-10
- 박사학위취득 : 이우진집사(1교구) 부동산학(강원대)
- 승진 : 전훈덕집사(8교구) 삼성화재 본사 인사부 차장으로
- 이전 : 엄성웅집사(1교구) 한마음스포디의원, 대치동961번지 창진빌딩5-7층, 3452-9912.
- 개업 : 최지욱성도(12교구) 코페아커피(숨, 아카데미, 유통, 건설팀) 오픈 3월 9일, T. 031-755-2929
- 수상 : 이승선성도 (11교구)미국 엘프트만 오르간콩쿨 1등 수상
- 주간식당봉사 : 빌립선교회(3.11) 안드레선교회(3.18)
- 금주의 식사 : 조경호 성도(6교구) 어머니 서창호 권사 장례 은혜 중에 마치고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요일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30분	
새벽기도회	매일새벽 5시30분	